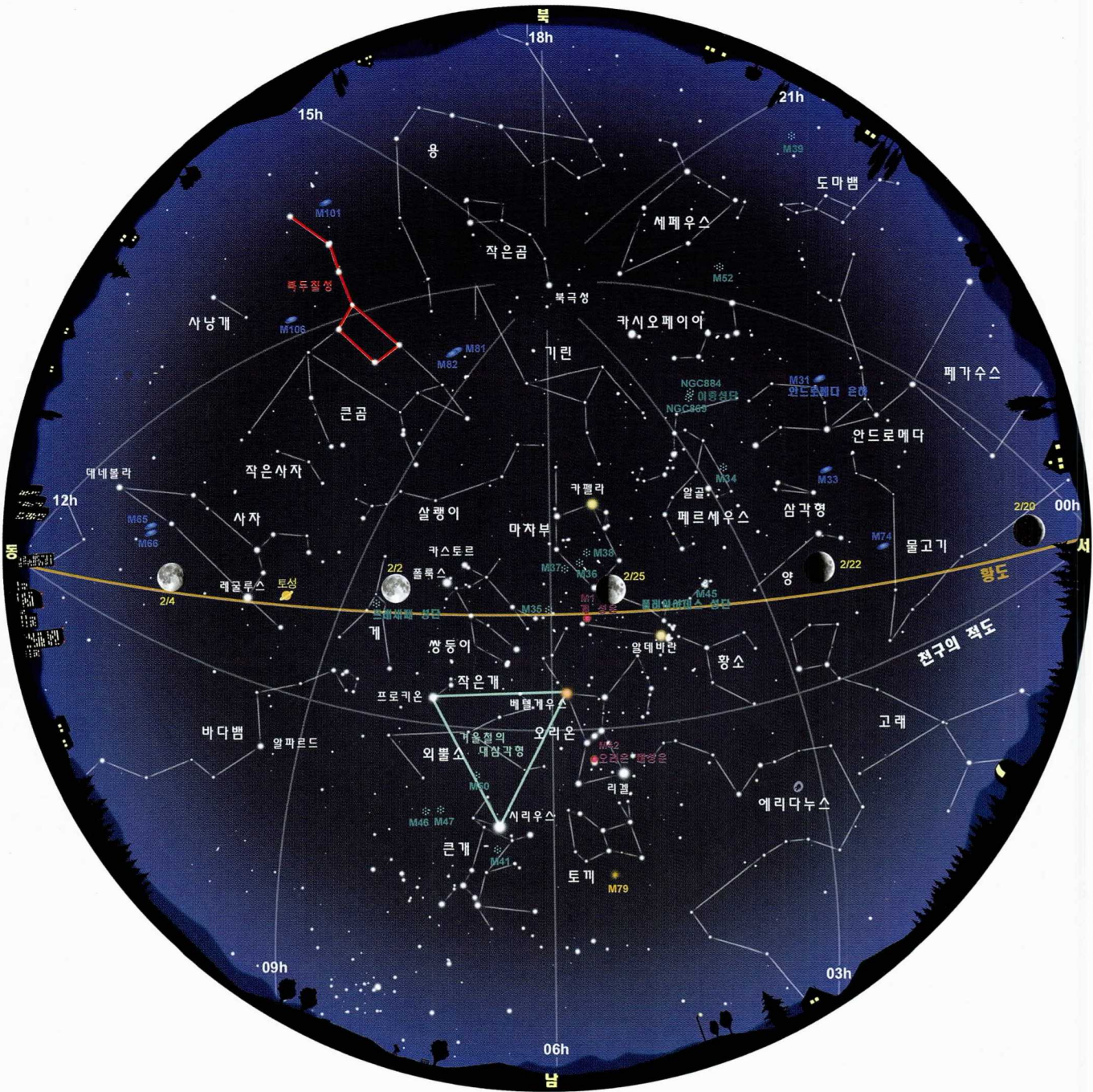


2월의 밤하늘



※ 성도 사용법

이 성도에는 6.5등급보다 밝은 별과 주요 성운, 성단, 은하, 달, 행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. 보통의 지도와 달리 성도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바뀌어 있다.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성도를 위로 들고 성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용한다.

성도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2월 1일 22시, 3월 1일 20시 기준이며, 행성의 위치는 2월 1일 0시 기준이다.

성도 범례	
● 1등급	☆ 산개성단
● 2등급	● 구상성단
● 3등급	● 성운
● 4등급	● 은하
● 5등급	
● 6등급	

주요 천문 현상

	S	M	T	W	T	F	S
2월					1	2	3
2일 4:45 망					●	●	●
4일 14:18 입춘(태양 황경 315°)						망	
7일 19:00 금성-천왕성 접근(0.8°)							
8일 02:00 수성 동방최대이각(18°)	4	5	6	7	8	9	10
9일 01:00 해양성 합	●	●	●	●	●	●	●
10일 18:51 하현							하현
11일 04:00 토성 총	11	12	13	14	15	16	17
13일 23:00 수성 유(동-서)	●	●	●	●	●	●	●
18일 01:14 합삭							
19일 10:09 우수(태양 황경 330°)	18	19	20	21	22	23	24
23일 14:00 수성 내합	합삭	●	●	●	●	●	●
24일 16:56 상현	25	26	27	28			상현
	●	●	●	●			

◎ 8일 수성 동방최대이각



태양계 행성 중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수성은 항상 하늘에서 태양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없다. 지동설로 유명한 코페르니쿠스조차 수성을 보지 못하고

생을 마감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수성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찾아 봐야만 볼 수 있는 대상이다. 이러한 수성을 가장 보기 좋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는 최대이각 시점이다. 태양을 기준으로 수성이 동쪽에 위치할 때는 동방최대이각이라고 하며, 서쪽일 때를 서방최대이각이라고 한다. 동방최대이각일 때는 해 진 후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, 서방최대이각일 때는 해 뜨기 전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. 보통 1년에 서방최대이각과 동방최대이각은 각각 세 차례 정도 있다. 그런데 최대이각이라고 항상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. 수성과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는 시각이 비슷하면 관측이 어렵다. 다시 말해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황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 커야만 수성의 고도가 높고 관측이 수월해진다. 오는 2월 8일의 동방최대이각을 전후로 한 시기는 관측 조건이 매우 좋다. 해 진 후 서쪽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일몰 30분 후인 저녁 6시 30분 무렵의 고도가 11°에 이른다. 이 정도 고도라면 특별히 높은 산이나 건물이 시선을 막지 않는 한

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. 수성 위로는 밝게 빛나는 금성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. 내행성인 수성은 금성과 마찬가지로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를 한다. 다음 최대이각은 3월 22일(서방최대이각)에 있으며, 6월과 9월에 동방최대이각이, 7월과 11월에는 서방최대이각이 있을 예정이다.

◎ Comet C/2006 P1(McNaught)

지난 1월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손님이 저녁 하늘에 등장했다. 작년 8월에 발견된 C/2006 P1 맥노트(McNaught) 혜성이 그 주인공. 발견 당시 밝기는 17등급으로 매우 어두웠다. 그러나 근일점에 접근하면서 밝기가 급속도로 증가해 근일점 통과 일인 1월 13일에는 -5등급에 이르렀다. 이는 1965년의 이케야-세키 혜성(-7등급) 다음으로 밝은 것이다. 그러나 아쉽게도 북반구에서는 이날까지만 관측할 수 있었다. 남반구 하늘로 이동한 혜성은 1월말에 30도가 넘는 화려한 꼬리의 모습을 펼쳐 보였다. 현재의 밝기 변화라면 2월 중순까지는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, 천구의 남극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.

▶ 1월 12일 국내에서 촬영된 맥노트 혜성(촬영지 | 좌소백산, 우-서울)

